

# 이동진의 빨간 책방

22

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 허윤경

## 책, 임자를 만나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김영하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검은 꽃』 『퀴즈쇼』를 잇는 ‘고아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이다. 스스로 우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쓴 고아들의 이야기, 커튼을 내린 방 안에서 녹음된 빛소리를 들으며 골방에서 써내려간 이야기이다.

그래서일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기저에는 슬픔의 덩어리가 몸을 낮추고 한껏 웅크리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독자가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마다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키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어느 순간 독자를 슬픔으로 물들인다. 그리하여 독자는 이 슬픔과 한 덩어리가 되고 만다. 눈물 흘리는 장면 하나 없이 이루어내는 슬픔의 미학, 이것을 김영하식 슬픔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없겠다. [출처 / YES24]

## 에디터 통신

### 하워드 선물

누구나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지요.

『하워드의 선물』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미국 경영학계의 대부이자 하버드대 최고의 교수 하워드 교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놀라운 깨달음과 삶의 지혜들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단편적이고 제한된 생각에 반전을 주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늘 '소리 나는 책' 코너에서는 '김영하 작가님의 두 권의 책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인 <옥수수와 나>의 대목들을 읽어드릴텐데요. 김영하 작가님, 워낙 낭독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프롤로그를 읽어주시니까 더 각별한 느낌이 드네요. 다른 팟캐스트 방송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



##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Q. 언제부터 유럽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A.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준 역사만화에서 시작됐다. 성격상 책을 읽으면 10번씩 반복해서 읽는 성격이다 보니 고등학교쯤 되니까 역사가 말하는 바,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심이 생겼다.

Q. 언제부터 유럽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A. 단지 나폴레옹, 로베스 피에르처럼 인물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통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해보고자 했다.

Q. 작업하면서 예전의 유럽사에서 현재의 유럽으로 이어지는 흐름들도 느낄 수 있으셨나요?

A. 물론이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다른 면들이 많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 배경에는 결국 역사적인 이유들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Q. '조금은 삐딱한 한국사' 를 쓴다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A. 굳이 쓴다면 더 삐딱하게 쓸 것 같다. 80년대부터 유행했던 관점, 상고사의 제국론을 다 뒤엎고 싶다. 잘못된 생각이다.



## 내가 산 책

###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어째서 '채식주의' 는 윤리적인가!

### 채식의 배신

불편해도 알아야 할 채식주의의 두 얼굴

### 오래된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다시 가보고 싶은 그곳, 매혹적인 지방도시 순례기

### 클린트 이스트우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낸 클린트 이스트우드 평전

### 클린트 이스트우드, 거장의 숨결

영화 인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24편의 인터뷰



# 이동진의 빨간 책방

## 디지털 매거진 4월호 발행!

아이폰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 Vol.02가**  
 발행 됩니다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2 다운로드** 

### 매거진 미리보기

2013년 4월 1일,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02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리러 갑니다



내가 산 책